

운구 차량 도착하자 추모객 ‘울음바다’

통곡의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신을 실은 운구 차량이 23일 오후 6시30분께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도착하자 순식간에 운동 울음바다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됐던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오후 5시40분께 출발한 운구 차량은 고속도로를 거쳐 50분만에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를 비롯한 유족과 참모진 등은 병원 층이 제공한 2대의 버스와 승용차 등에 나타나고 운구차를 뒤따랐다.

경찰의 풀리스라인 대신 노란 띠를 이용해 마을 입구에서부터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봉하마을은 일순간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차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에 이들 건호씨가 현화하며 울먹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회관 봉하마을에 건호·정연씨 조문객 맞아

李대통령 조화 땅바닥에 팽개쳐져

량을 통해 운구되는 노 전 대통령을 맞이한 추모객 수천여명은 곳곳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봉하마을을 찾은 노사모 회원들과 추모객, 마을 주민들은 봉하마을 진입로 양쪽을 가득 메우고 있다가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도착하자 ‘엉엉’ 소리를 내며 큰소리로 울었다.

일부 추모객들은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사자 뒤 부엉이 바위가 바라보이는 도로변에서 “저 곳이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곳”이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 회관 스피커를 타고 봉하마을에 올려 퍼진 친환경은 봉하마을을 한 층 더 슬픔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지난 2월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의 귀향과 검찰 소환 등을 조용히 지켜본 봉하마을 주민 등 추모객 일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족발된 분노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봉하마을 주변에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차려진 마을회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가 유족 대표로 조문객을 맞았

촛불바다로 변했다.

조문객들은 전국에서 모인 ‘노사모’ 회원 100여명이 나눠준 촛불을 들고 봉하마을 주변에 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조문객들은 봉하마을 입구 ‘노사모’ 자원봉사 지원센터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생전 국정 운영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며 그를 추모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지 하 1 층 장례식장을 찾았던 권 여사는 훨체어를 탄 채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듯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손수건으로 연방 눈물만 훔쳤다.

권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36년 간 희로애락을 나눈 동반자였다.

경남 마산 출신인 권 여사는 계성여상 중퇴 후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1973년 노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당시 권 여사는 집안에선 특별한 직업도 없는 고시준비생이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 전 대통령 가족도 권 여사 부친의 좌익 전력을 들어 반대했지만 ‘서로 물불을 안가리고 좋아해’ 결혼식을 올렸다는게 노 전 대통령의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에 소

참혹한 시신 확인하고 까무라쳐

36년 반려자 잃은 권여사

개된 내용이다.

권 여사의 뒷바라지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사법고시 합격으로 이어졌다. 이후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81년 부립사건 변론을 계기로 재야 변호사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변호사의 부인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88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인 부인으로서도 잠깐 행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1992년 14 대 총선과 1995년 부산시장 선거, 1996년 15 대 총선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었다.

정치인 부인으로서의 권 여사의 삶은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꽂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퇴임후 ‘박연자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자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달러를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권 여사의 책임으로 돌렸고, 권 여사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사상 두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건평씨 일시 석방…말없이 눈물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23일

오후 5시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건평씨가 석방될 당시 서울구치소에서는 비상등을 켠 겸은색 SM5 승용차에 이어 은색 NF쏘나타, 은색 SM5, 은색 아반떼 등 4대의 승용차가 잇따라 정문을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 정문 경비대원은 “4대 중 한대에 건평씨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 설명했다.

석방 당시 취재진 20여명이 정문 앞에 서 건평씨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부 방송사 카메라는 뒤늦게 뒤를 따라가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TV 시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건평씨는 접견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들은 것 같다”며 “(건평씨가) 말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모습을 내가 직접 봤다”고 전했다.

“평생 동지로 살기로 했는데…” 강금원 통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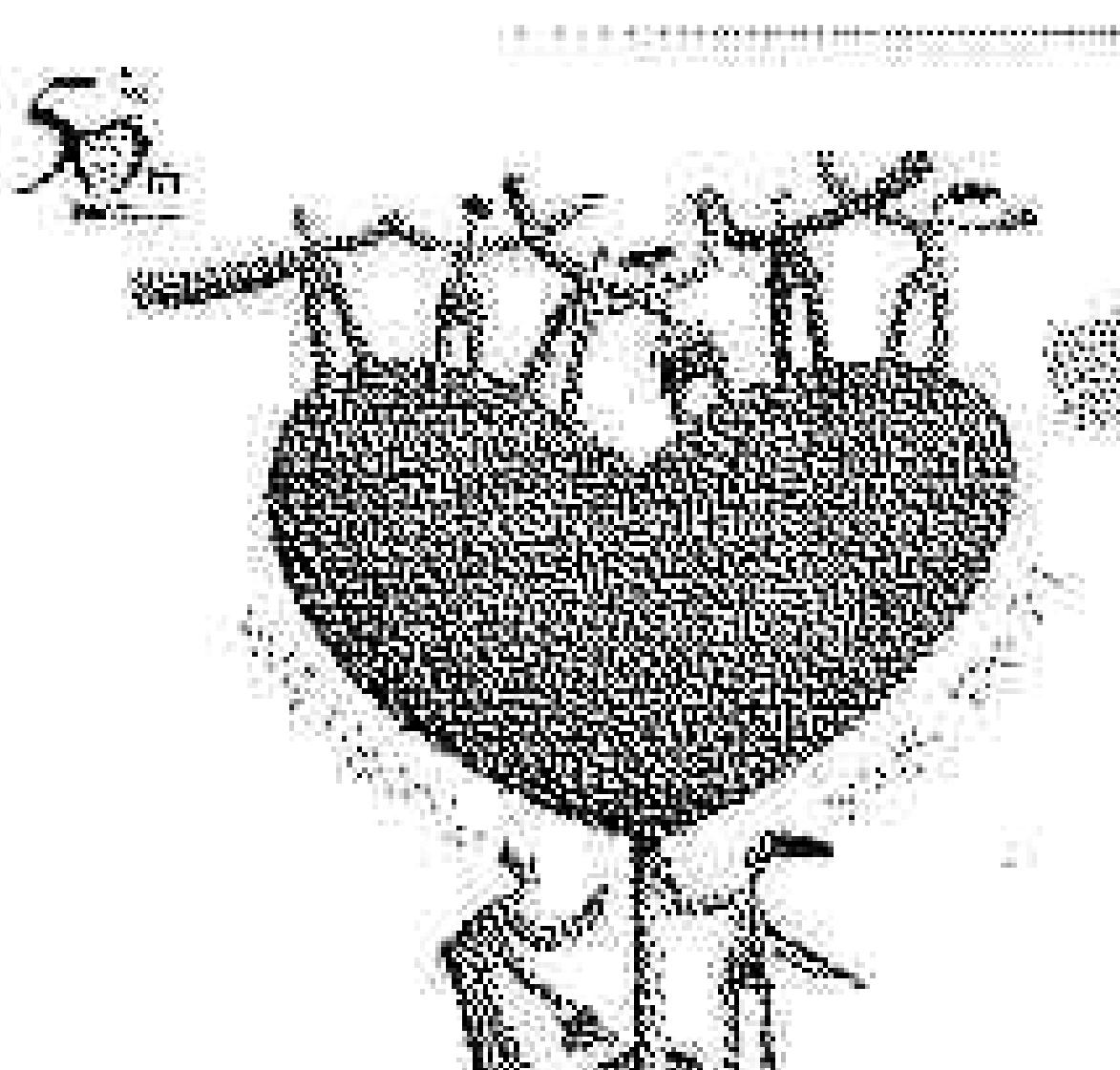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에 정치적 동지자 후원자인 강금원(57·구속)

창신섬유 회장이 교도소 안에서 서럽게 운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후 대전교도소에서 강 회장을 접견한 임정수 변호사는 “초췌한 모습의 강 회장이 접견하는 20분 내내

렇게 힘들어 할 때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서럽게 울더라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강 회장은 ‘돈 육심이 전혀 없던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며 ‘이런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힘으로 그는 그 힘으로
나는 그 힘으로 그는 그 힘으로

나는 그 힘으로 그는 그 힘으로
나는 그 힘으로 그는 그 힘으로

나는 그 힘으로 그는 그 힘으로

